

지역 매 아리

고창경찰서, 비위예방 등

청문현안 집중공유 토크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발생한 비위사례 및 주요현안들을 공유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켜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품수수 등 중요범죄가 급감하여 조직의 청렴도가 향상된 반면, 음주운전 등 개인적 일탈행위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로, 단속주체에서 피단속자로 전락하면서 국민적 실망감을 극복하기 어렵게 만들지 말자는 취지의 토크를 실시하였다.

또한, 요즘 화두인 피해자보호지원과 인권보호에도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신중한 언행을 생활화 하도록 서로 공유함은 물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문화된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서도 신변보호를 비롯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 적극 점검해 가도록 전 직원상대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있다.

박형석 순경은 "토크를 통해 직원들의 의무위반 사례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 직위회식 등 사적모임을 가질 때 서로 지켜주는 동료애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성재 서장은 "의무위반행위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내달 11일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읍시보건소는 올해 정읍지역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다음달 1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인에게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이다.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기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올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은 국가지원 확대로 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2006.1.1.~2018.8.31.출생자)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어린이는 9월 11일부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하며, 접종경력이 있는 어린이는 10월 2일부터 1회 접종하면 된다.

접종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어린이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이면 가능하다. 정읍시의 경우 14개의 기관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불법조제... 환자 생명 빨간불

부안 A약국, 환자-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 변경

부안지역 한 약국이 처방전을 임의로 불법 대체조제해 환자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약법에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경우 환자에게는 즉시, 의사에게는 1일 이내, 부득이 한 경우에만 3일 이내에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약국 경우 B병원과 C병원의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약물을 이용한 주민들의 건강에 직결 되는 약법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3월경 박모(67,여)씨는 감기 증상을 앓아 부안읍에 있는 B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병원 앞에 위치한 A약국에

서 약을 제조했으나 확인결과 처방전 약과 전혀 다른 약을 제조 받았다.

또 다른 주민 유모(65,여)씨는 평소 허리가 아파 요추부 아래 허리통증을 앓아오던 중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는데 평소 먹던 약과 내용물이 달라 병원 의사에게 달려가 확인 한 결과 약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해당 약국에 가서 항의했으나 약국 오류를 인정하고 요구를 전액 환불받았으며 약사를 비난했다.

지난 20일 한모(58,남)씨 또한 아래 허리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했지만 처방전 약과 전혀 다른 약이었다고 말하며 약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 되는 약을 짓는 처방전을 받아 병원 앞에 위치한 A약국에

일부 약을 약사들 마음대로 바꿔 제조해 약 효능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해당 약국의 행위에 대해 저가의 약품을 처방전 약인 것처럼 환자에게 속여 조제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정상 청구해 부담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았느냐 의사의 눈초리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약국 약사는 "약품을 거래하는 거래처가 한 곳이어서 약을 주문하면 수 일이 걸려 애로사항이 많으며 대체조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부안군 관내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의약품 및 환자들의 약을 제조, 투약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보건소나 사정기관 등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 만반

정읍시가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정읍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전역에서 열린다.

정읍에서는 핸드볼, 씨름, 유도(장애인), 사이클(장애인) 등 총 4종목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핸드볼은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정읍국민체육센터, 씨름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정읍실내체육관, 유도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정읍국민체육센터, 사이클(도로)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산이면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연 초부터 각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기장 시설 개보수, 대회 홍보,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

특히, 선수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를 6월말 완료하였다. 또한 선수단 및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경기장에 배치하고, 숙박업 및 요식업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한 위생점검, 친절교육,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수천 문화체육과장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대회기간동안 다양한 문화공연 및 정읍시문화제를 개최해, 정읍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정읍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과정 공개모집

부안군은 2023년 부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중급)과정 지원자 25명을 오는 9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훈련과정은 오는 10월 12~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실시되며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조례에 의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 받는다.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과정 선발은 관내 학교 교사, 부안군민으로 스카우트 활동 경험자, 부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잼버리 과정활동 관계자, 부안 관내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www.bu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부안군 문화관광과 잼버리 성공개최준비TF팀 ☎ 063-580-4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이 2023년 부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과정 지원자 25명을 오는 9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급 훈련과정을 실시해 40명의 스카우트 지도자를 육성했다"며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스카우트를 배출해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배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달콤한 고창 배, 미국서도 인기'

2018년산 고창 황토배기 배 미국 수출

전국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고창배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고창배영농조합법인(대표 박형남)은 27일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대미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실시하고 수출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 물량은 원양, 황금배 14톤으로 내년 3월까지 총 500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18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할 전망이다.

고창배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성장하여 모양이 고르고 당도가 높으며 좋은 식감으로 인기가 높다.

2003년부터 수출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미국, 대만, 베트남 등에 수출을 진행하여 한국 배의 위상을 알렸다. 미국 수입사인 쥘리 마를라벨은 "미국에서도 배가 생산되지만 맛과 품질 면에서 고창배를 따라올 수가 없다. 예전부터 수입을 진행하였는데 풍부한 과즙으로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에서 생산되는 청정한 배라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전했다.

고창배영농조합법인은 "올해 지속된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재배여건이 어려워지만 조합원의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배를 수출하게 되어 기쁘다"며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고창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무한경쟁 FTA시대에 지속적으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고창배가 한국을 대표하는 과실로서 재값 받는 농업을 구현할 효자품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며 "친하게일강산 고창에서 생산되는 믿을 수 있는 고창배와 고창 농특산물들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농업생명식품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청렴한 부안 만들기 팔 걷었다

그동안 부안군이 각종 비리·부패사건 등으로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받아 민선 7기 권익현 부안군수 취임과 함께 청렴한 부안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최근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제정, 청렴 부안 혁신위원회 구성, 부정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공무원 청렴 서약서 교부,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을 민선 7기 반복 청렴 중점시책으로 정하고 핵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부안군은 청렴 부안 혁신위원회 구성 등 민선 7기 반복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직하고 깨끗한 부안 실현을 천명했다.

권익현 군수는 취임사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군수부터 혁신하고 새로워져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 부안을 만들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부안=이옥수기자

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바먼트 지력 취득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대표
일본 시벨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취득	